

# 김장겸 해임은 'MBC 정상화' 의 신호탄

## 지난 9년의 언론장악 역사 청산하고 새로운 MBC의 청사진 제시할 것

김장겸 MBC 사장이 마침내 해임됐다.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곧바로 주주총회를 거치면 김장겸의 MBC 사장 지위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박탈된다. 폐허로 전락한 공영방송 MBC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역사적 첫 발을 뗐다.

김장겸은 공영방송 장악과 MBC 파괴의 상징이었다. 지난 두 정권에서 그는 MBC 보도 부문의 핵심 요직을 거치면서 편파와 왜곡, 불공정 보도와 상습적인 뉴스 사유화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했다. 수많은 MBC 방송 종사자들에게 해고와 부당징계, 부당전보의 굴종을 강요한 노동 탄압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오늘 김장겸의 해임은 지난 9년 MBC를 장악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MBC에는 적폐의 잔재가 곳곳에 쌓여 있다. 불의한 집권 세력과 결탁해 잇속을 챙긴 백종문 등 부역 경영진과 간부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언론 장악에 협조한 대가로 주어진 지역 MBC 사장 자리에 앉아 MBC의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지역성을 말살하는 자들도 건재하고 있다. 모두 김장겸과 함께 퇴출돼 공영방송을 망친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고, 이미 상당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역의 잔당들은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지난 9월 4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은 이제 파업의 중단 시점을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파업을 멈추더라도 현재의 적폐 경영진 체제에서 MBC 종사자들은 제한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언론장악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MBC의 비전을 선포하기 위한 투쟁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MBC 정상화 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우리는 김장겸 체제의 잔재를 몰아내고, 이들의 사법적 단죄를 위한 진상 규명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방송 종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어떠한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을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쟁취해, 보도의 공정성과 편성·제작의 자율성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다. 무능력한 인사들에게 부역의 전리품으로 제공된 지역 MBC도 다시 지역 시청자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 장악의 고통스런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MBC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법률 개정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 MBC의 시급한 당면 과제는 새로운 경영진 선임이다. 우선 정치권은 MBC의 차기 사장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MBC의 명실상부한 정치적 독립이기 때문이다. 구시대의 관행에 따라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MBC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배격할 것이다. MBC의 사장은 국민과 시청자들이 선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뽑혀야 한다.

오늘 김장겸의 해임으로 MBC 정상화 투쟁이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의 명령이다. 우리는 국민과 시청자들이 열어 준 공영방송 복원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않을 것이다.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총파업 투쟁 과정에서 국민에게 드렸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이다. 잣더미의 폐허 위에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공영방송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공영방송의 반석 위에 MBC를 올려놓을 것이다. 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MBC의 정상화 투쟁은 계속된다.

2017년 11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